

'난포교 재가설' 해결책 마련

국민권익위, 전북자치도-익산시-금강유역환경청 조정 협의

익산시 주민 숙원사업 '난포교 재가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됐다.

익산시가 장마철마다 주민을 불안하게 한 난포교를 안전하게 바꿀 교두보를 마련했다.



난포교는 1980년 성당면과 용안면 경계에 있는 지방하천 산북천을 건너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로 지난 40여년 간 산북천을 사이에 둔 이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난포교는 하천 제방보다 낮게 위치해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월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함을 토로해왔다. 실제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우로 난포교가 범람할 위험에 처하면서 인근 13개 마을 600여 명에 대한

대피 명령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난포교 재가설을 요구한 데에는 교통 위험의 이유도 있었다.

용안생태습지와 금강을 가기 위해 난포교를 건너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한 번에 차 한 대가 지날 수 있는 좁은 폭 탓에 다리 위에서는 수시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게다가 급커브를 해야 건널 수 있는 도로 선형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 고충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난포교 재가설 문제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지 조사를 시행, 업무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정 결과 금강유역환경청이 난포교를 금강 공주권역 배수영양구간 정비사업에 포함해 재가설하기로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농식품부-군산시, 농식품바우처 의견수렴 현장 간담회

지역 바우처 카드 사용 사업장 현장의 목소리 귀 기울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군산시는 13일 군산시 농업인회관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산양유 등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엔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읍면동

바우처 사업담당자, 바우처 카드사용 사업장 대표가 참석했으며, 바우처 카드 신청·발급 및 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사업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먼저 바우처 카드 신청·발급 실무를 맡은 읍·면·동 담당자들은 민원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담당자들이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 바우처의 신용카드 기능 탑재 등을 건의했다.

또한 카드 결제 사업장의 경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 본 사업 시행 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으며,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향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시민들에게 우수한 농식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 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 관련자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벼 병해충 방제 총력... 약제 지원 8억원 투입

익산시가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약제를 지원한다.

시는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벼 종합방제 약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해충 피해 최소화하고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약제를 지원하고 적기 방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을 통해 벼 병해충 종합방제 약

제 구입비를 ha당 5만원 상당의 교환권으로 지급한다. 교환권은 문자로 발급되며 농업인이 희망하는 지역농협·지역 농약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벼 재배 농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살균제와 살충제 각 30여 종 중 가격과 효과를 고려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살균제는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방제 약제가 대상이며 살충제는 △멸구류 △나방류 △노린재류 등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사업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돕고 병해충 확산 방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농업인 스마트콘텐츠 혁신대회'에서 군산시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스마트콘텐츠 분야 '대상'

군산시,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서 서인희 대표 수상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군산시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인의 스마트경영 혁신을 촉진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 커머스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참가자들은 발표와 시연을 통해 농업 경영의 미래를 제시해 관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모았다. 또한 시상식에서는 군산시 도다민보여농소농장 서인희 대표가 스마트콘텐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인희 대표는 농식품 생산·마케팅과 관련된 주제로 5분 내외의 동영상을 출품했으며, 소비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례를 전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2024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했다.

대회에 참석했던 군산시 농업인 A씨도 "농업의 혁신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경영 방식을 통해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순덕 익산시의회 발의

평일 낮시간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병원동행·병상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순덕 의원은 지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5분 자유발언에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픈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에 '익산시 공공심아러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야간·휴일에 아픈 아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에 이어 이번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평일 낮에도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익산시의 24시간 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옹포블루베리축제' 오토캠핑장 일일서 개최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3회 익산옹포블루베리축제'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오토캠핑장 주차장(옹포면 강변로 25) 일원에서 열린다.

'익산옹포블루베리축제'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시작했으며, 소비자와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이다.

이번 축제는 오토캠핑장주목회가 주관하고 익산시에서 후원하며 △햇 블루베리 판매 및 체험 부스 △네이버 라이브 쇼룸 △현장 쿠키·노래·장기 자랑 △머거리부스 등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자녀 3명 이상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 블루베리 200g 1팩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옹포 블루베리는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익산블), 로컬푸드매장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공선회를 조직해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17% 인하

군산시는 6월 3일부터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최대 17%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 달부터 이용량이 많은 보통 번호판 필름식 가격을 3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페인트 식번호판 가격은 2만1,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최대 17% 인하했다.

단, 대형번호판(2만5,000원), 전기자동차번호판(3만5,000원), 이륜자동차번호판(8,800원)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여기에 번호판 봉인비와 보조대 관련 수수료는 별도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인접 시에 비해 번호판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달 자동차발급대행업체 4개소와 간담회를 갖고 6월부터 군산시의 권장 가격으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